

32. 2022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(BTL)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2년 9월 30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교육감
-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4일
- 상정일자 :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제1차 교육위원회(2022년 10월 17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주진욱)

□ 제안이유

-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일환으로, 동부초 외 3교의 학교 개축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(BTL)으로 추진하기 위함

□ 주요내용

- BTL 대상학교

(단위 : 백만원, 부가세 외)

구분	학교명	예정지	사업내용			비고
			사업면적(m ²)	학급수	총사업비	
개축	동부초	대구 동구 신암북로7길 22	4,280	10	10,504	본관동
	만촌초	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214길 33	3,425	17	8,407	본관동
	평리초	대구 서구 국채보상로53길 6-5	5,328	40	13,076	교사A,B,C동
	안심중	대구 동구 안심로 237	5,683	19	13,948	후관,서관동
계	4교		18,716	86	45,935	7동

○ 의무부담금액

(단위 : m², 백만원, 부가세 제외)

사업명	사업면적 (m ²)	총사업비	의무부담액(20년간)		
			계	시설임대료	운영비
동부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(BTL)	18,716	45,935	71,160	62,639	8,521

※ 사업물량 및 사업금액은 사전기획용역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노인만)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8호 및 「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」 제115조제4항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임

○ 검토결과

- ▶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 중 하나로,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하여 공간혁신·그린·스마트·복합화 학교를 조성하는 사업임
- ▶ 대구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5년간 8,755억원을 투입하여 총 134동에 대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, 이중 25%(34동 2,655억원)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(BTL)으로 추진할 예정임
- ▶ 이미 2021년에 고산초 등 4개교 7동을 BTL사업으로 추진⁴⁰⁾ 하였으며, 이번 동의안은 2022년 BTL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동부초 등 4개교 7동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임

40) 개축대상학교 중 개축동이 별동으로 구분되어 있는지, 학급수감소가 없는 학교 등을 기준으로 BTL대상 선정

구분	대구(전국 4.7% 수준)		21~22년 대상		23년 대상		24~25년 대상	
	물량	사업비	물량	사업비	물량	사업비	물량	사업비
재정(75%)	100동	6,100억원	39동	2,661억원	18동	1,098억원	43동	2,341억원
BTL(25%)	34동	2,655억원	14동 *	982억원	6동	366억원	14동	1,307억원
합계	134동	8,755억원	53동	3,643억원	24동	1,464억원	57동	3,648억원

* 2021년 : 4개교 7동[고산초(본관), 서도초(1,2,3동), 명덕초(남관), 달성중(본관, 후관)]
 2022년 : 4개교 7동[동부초(본관), 평리초(교사1,2,3동), 민촌초(본관), 안심중(본관, 서관)]

- ▶ 이번 BTL사업 대상학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의무부담액은 시설임대료 626억 3,900만원, 운영비 85억 2,100만원, 총 711억 6,000만원으로 상환방법은 20년간 분할 상환이며, 시설임대료 사업수익률은 5년 만기 국고채 1.22%와 가산율 1.00%를 더한 2.22%이고, 운영비는 최초년도 운영비에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매년 0.80% 적용한 것임
- ▶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연도별 예산이 충분하게 배정되지 못해 완공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이번 학교 개축에 이용되는 BTL사업 방식은 민간의 자본력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,
- ▶ 특히,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학교 공간을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학습공간이자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미래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이기에,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BTL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

- ▶ 다만, 교육청에서는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간 BTL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민간사업자의 저가 건축자재 사용 등을 통한 부실공사·하자관리 및 유지관리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 및 협약 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,
- ▶ 또한, BTL사업 추진 방식이 20년 상환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에,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교육재정 규모를 고려하여 BTL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○ 최근 교육청에는 대규모 기금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인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전체를 재정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일부를 BTL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?	○ 교육부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조건으로 전체 사업 물량의 25%를 BTL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, 중장기적으로 교육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 배정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BTL사업을 진행하고자 함
○ BTL사업 방식의 장점은 무엇이며, 재정사업과 비교해 볼 때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?	○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 시 민간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고 민간자본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,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BTL학교의 운영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대행해 주어 대부분 만족도가 높음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수정안요지

○ 없 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